

##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 개회식 축사 및 개회선언

존경하는 마리오 바스케즈 라냐 ANOC 회장,

자크 로게 IOC 위원장,

그리고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가 이곳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스포츠계 지도자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무척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OC는 올림픽의 숭고한 이상을 구현하며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IOC와 더불어 전 세계 20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계의 중심적인 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ANOC가 이루어 온 성과와 이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총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정길 KOC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올림픽은 이념과 종교,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인류에게 벅찬 감동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역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영웅 손기정 선수는 일제 식민통치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울올림픽이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냉전의 빙벽을 녹이는 데 기여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를 부르던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림픽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시드니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는 남북 선수들에게 전 세계가 보내준 환호와 찬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정과 기대는 각별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올림픽은 물론, 1986년 ANOC 총회와 1999년 IOC 총회 등을 통해 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잔치를 참 좋아합니다. 잔치를 잘 치른 경험도 많습니다.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월드컵과 같이 개최하는 행사마다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전력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회원국 간의 친선과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15차 ANOC 총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